



연세대학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
 강원 강진면 다산로 766-20
 TEL 061.430.5780
 장소 : 다산박물관 다목적홀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13:30 ~ 18:00
 강릉시립도서관 11월 9일(금) 13:30 ~ 18:00
 장소 : 다산박물관 다목적홀
 제22회 학술대회
 康津茶山實學研究院



다산 해배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
 ‘茶山이 康津에 남긴 유산들’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13:30 ~ 18:00
 장소 : 다산박물관 다목적홀
 주관 : 연세대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

모 . 시 . 는 . 글

안녕하십니까

茶山實學의 산실인 康津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산실학연구원 제 2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산 해배 200주년을 맞이해서 '다산이 강진에 남긴 유산들'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산은 18년 동안 많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다산학단'이라는 학문적 유산을 강진에 남겼습니다. 또한 '다신계'를 결성하여 '우환을 함께 한 사람들[與共憂患者]' 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남긴 유산들을 중심으로 강진의 역사·문화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다산과 강진의 인연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그 유산들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1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원장 신 형 기

康津茶山實學研究院
제22회 학술대회

13:30~13:50 등록
13:50~14:00 개회사 | 신형기(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원장)
축 사 | 이승옥(강진군수)

사회 : 이기훈(연세대)

14:00~14:30 1주제 : 다산의 해배과정과 19세기 정치적 상황
발표 : 김태희(다산연구소)

14:30~15:00 2주제 : 「다신계절목」의 자료적 성격과 다산 제자
발표 : 김덕진(광주교대)

15:00~15:10 휴식

15:10~15:40 3주제 : 다산제자들의 문학세계 - 황상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발표 : 장진엽(연세대)

15:40~16:10 4주제 : 해배이후 인적교류를 통해 본 다산의 학문세계
발표 : 황병기(대진대 인문학연구소)

16:10~16:20 휴식

16:20~18:00 종합 논평 및 토론

좌장 : 허경진(연세대)

김선기(강진시문학파기념관), 김용흠(연세대 국학연구원), 김준혁(한신대)

